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챌린지 지적

드론측량대회 우수상 수상

부안군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측량환경에 대응하고 전국 지자체 지적직공무원의 지적측량 검사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회는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자체 지적측량 17팀이 참가해 경쟁했다.

군은 행정복지국 민원과 송민섭(시설 7급)·최신욱 주무관(시설 8급)·권형우 주무관(시설 8급) 등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출전했으며 제한시간 내 지적측량 장비운용, 지적측량 준수사항,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등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에서 각각 2위, 1위를 기록해 전국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5억 규모  
기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정읍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 주력 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비롯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원 자금을 이미 수혜받고 있는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노을대교, 2030년 전 개통 청신호

고창군, “올해 해상대교 공법 세부설계 · 환경영향평가 추진… 내년 착공 최선”

고창군과 지역자치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노을대교’의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203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창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노을대교 총사업비로 4217억원을 통보받았다. 이는 기존보다 400억원 정도를 증액한 것으로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자치도 도지사 등 지역자치권의 노력이 빛났다.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8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해상대교 제안공법에 따른 세부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8.86km 길이의 다리를 말한다. 완공 땀 70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5km로 줄어든다. 다리가 놓이면 기존 한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특히 노을대교는 대한민국 해안관광도로인 KR777 위에 건설된다.



Korea777(KR777)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을 잇는 서해안 관광도로인 국도 77호선과 동해안 관광도로인 7호선을 연결하여 명명한 것으로 한반도 바다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통합해안도로를 일컫는다.

디자인이 아름다운 랜드마크 노을대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 노을이 아름다운 관광형 휴게소 대죽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해안 해안도로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된다.

고창은 충남 태안반도와 새만금, 부안 변산 전남 무안 목포까지 이어지는 초광역 관광권역의 핵심거점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생산량 50%를 차지하는 바지락과 풍천장어 등 특산물 판매는 물론, 동호·구시포해수욕장도 방문객이 밀려들며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선제적 안전관리로 시민 생명 · 재산 보호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 “여름철 집중호우 · 태풍 등 자연 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안전 점검 철저”

이학수 정읍시장은 19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따른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공사장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낙하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강력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강풍을 동반한 기상 상황이 잦으므로, 건축공사 현장의 타워 크레인, 가설 구조물, 광고판, 비닐하우스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꼼꼼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에너지 자립마을 5곳 본격운영

고창군이 월 최대 30만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본격 운영한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무장면 송정마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현판제막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우선 선정해

마을창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10여 개 마을 총 200kW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마을 협동조합의 통장으로 적립돼 어르신 복지, 마을회관 운영, 마을 행사 등 공동 기금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마을당 설치용량에 따라 월 15~30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며, 마을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에너지 자립마을을 늘려 마을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투표로 민주주의 꽃 피우기’

정읍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독려

정읍시가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시민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시는 윤·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투표를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정읍시의 예상 선거인 수는 약 9만 400명에 이른다. 사전투표는 지역 내 23개소에서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화요일, 4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읍시 투표율이었던 80.2%를 넘어시키기 위해,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

획이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주요 거리에 투표 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사와 각 읍·면·동 청사에는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또한, 공동주택과 농촌마을 등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청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비롯해 LED 전자 게시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투표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홍보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주요 간부회의를 19일로 앞당겨 42개 관과소·읍면장에게 군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읍·면·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의 시 주민들에게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하고 군민들이 가정 내에서도 쉽게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및 본투표 당일 마을방송을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권익현 부안군수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정을 알리는 안내판을 들고 군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군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부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부안군 투표율이 전국에서 투표를 1위가 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 비용 면제

고창군이 전북 최초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 주민등록증(이하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IC칩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2종류 수단 중 하나로 스마트폰에 해당 실물증을 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는 실물증 발급비용 5천원과 IC칩 비용 5천원, 총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고창군은 경기 불황 속에서 주민들

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IC칩 비용의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민은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1회에 한해 IC칩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IC칩 주민등록증 발급 횟수와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전액 면제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